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참고 견디노라면



임 경 미

- 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 수원대 법학과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일먼저, 이렇게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오늘이 있기까지 지도해 주신 송희성 교수님과 모교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마치고 안절부절 하며 마음조리고 생활한 지 4개월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어제와 오늘도 한결같이 종교 활동에도 더욱 빠져보기도 하고, 아직은 낯설지만 작은 사회생활(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다를 바 없이 열심을 다하며 감사하지냈습니다. 지금도 제 능력이상의 결과에 머리 숙여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제가 다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미력이나마 도움과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몇 자 적습니다.

수도여고를 졸업하고 수원대 법대를 졸업하면서 그간 ‘내가 여기까지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하는 생각과 남들이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욕심(명문대 법대 진학)도 갖고 휴학 중, 제수도 해보기도 하며 지금의 감사한 결과는 상상조차 못한 채 몸부림쳤던 어린 제 모습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부모님과 오빠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잘 따르고 가던 덕분에 ‘나에 대한 갈 길’과 ‘나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도 생겨나고 지금의 위치에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소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신이란 걸 만들어가는 그만큼의 유예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처음 합격은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경험하였고 중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작년에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고 가계에도 부담이 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하였습니다. 공부에는 신림동 독서실과 집, 휴일엔 집 인근 시립도서관에서 자습하였으며, 모자란 부분은 신림동 학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기본서와 학원교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며 실력을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서 1독을 위해서 암기보다는 용어와 학설, 논거 등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으나, 이해가 되어가는 중에는 자연스럽게 기본서에 있어서도 저자 중심의 교과서와 판례 등에 관심을 갖고 교수님과 선배님의 조언으로 결정하는 등의 법 공부의 성숙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소견은 틀린 그림 찾기와도 같이 이미 그려져 있는 법의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과 자세인 것 같습니다. 2차에서는 확실히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와 동시에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사용하며 정리하는 공부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

하였습니다. 송희성 교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관련시켜 이해하고 함축성 있게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연습하였습니다.

2차 시험의 준비과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 본인의 어느 정도의 자습력을 믿기 보다는 학원 강의 수업의 진도에 매번 맞춰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갔으며 스티디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또다른 공부의 신경이 필요하기에 하지 않았고 온라인 강의도 병행코자 욕심을 내어 봤지만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하기에 저와는 맞지 않아 학원순환에만 쫓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임했습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란 것을 그릴 수 있는 실기 능력을 갖춰야 하기에 시간과 투자(고시촌 내에서의 학원, 가사생활 등)에 절실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손 모아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지인들의 감사한 은혜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된 실패에 있어서도 낙심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인 수많은 반복 속에서 누구보다도 나의 그림이 더욱 뚜렷하고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나의 노력이 훗날 법관으로서 더욱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신념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감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힘들게 공부하면서 나의 삶과 가치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종교 활동에도 소홀치 않고 규칙적으로 공부 이상으로 반복했던 작은 습관이 특별히 여가를 즐길 수 없었던 저에게는 적지 않은 안식의 시간이 되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합격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도 흘리지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얻음에 더욱 감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사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으로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시금 지금의 있기까지 앞으로도 함께할 하나님과 너무도 부족한 제자를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송희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열과 성의는 우리 수윈대 출신을 여러명 합격으로 이끌었습니다. 교수님의 건강과 명강의가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대학선배 임순호 변호사님,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함께한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제게 이렇게 지면을 허락해 주신 고시계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지금도 합격의 그날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열심을 다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푸쉬킨’의 시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결코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모두 그리워만 진다.